

코스피	2412.85 (+10.21)	코스닥	791.60 (+11.30)
금리 (미국 9년)	3.797 (+0.114)	환율 (원-달러)	1322.60 (-0.40)



초과이익 재투자, 中 투자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에 '독든 생배' 우려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

美 '칩스 포 아메리카' 개시

美 상무부, 심사 기준 공개
보조금 규모 총 390억 달러

최첨단 공정시설 지원 가능
지역 보육료 지원계획 요구
반도체 필요시 美 우선 공급

반도체 업계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생산성을 대폭 확대할 기회지만,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3월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칩스 포 아메리카'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칩스 포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새로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미국에 2개 이상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여러 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과 최첨단 D램 대량 생산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 규모는 총 390억달러(한화 약 51조원)에 달한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3월 31일, 후 공정 시설은 6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반도체 자재와 장비와 연구개발시설 대상



3·1절 기념사 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지원금 절차는 각각 늦봄,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는 관련 법안 발표 직후부터 지원 신청을 준비해왔다. 인텔과 마이크론 등 현지 업체는 물론, 대만 TSMC와 삼성전자도 현지에 대규모 증설 방침을 확정하고 강력한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보조금조건이 예상보다는 까다로운 탓에 다소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보조금 신청 직후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원 대상인 최첨단 반

도체 기준이 비메모리는 5나노, D램은 13나노 이하에 낸드플래시도 200단 이상이다. 말 그대로 최첨단 공정을 미국에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TSMC만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아직 개발 중인 공정이다.

지원금 사용 조건도 복잡하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꼭 필요한 자금만 요청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재무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수익도 나눠야한다. 1억5000

만달러(약 1900억원) 이상 지원 받는 경우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 사업자 혹은 직원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원한 자금의 75%를 언급하며, 초과 이익을 다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가드레일 조항'에 동의를 해야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우려대상국가'에 10년간 반도체 시설을 짓

社告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100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엄탐정',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엄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업 미래에셋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및 웨비나(온라인으로 진행)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거나 투자하면 안된다. 미국 국

방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 편에 서야한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보조금 신청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도 미국 상무부가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추가하면서 당초 목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목적도 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인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이 접으니 다 접는다... 폴더블폰 '춘추전국'

아너·오포 등 中 제조사들
MWC서 폴더블 기술 선배
애플도 최근 관련특허 획득
2025년 폴더블 아이폰 기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기업들과 애플이 뛰어든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폴드 시리즈를 과도하게 따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접는

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애플도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 애플의 폴더블 기기 출시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폴더블 기술을 채택한 자신들의 폼팩터를 대거 선보였다.

중국 제조사 '아너(HONOR)'는 '아너 매직Vs'와 플래그십 스마트폰 '매직5' 시리즈의 출시를 알렸다.

아너는 이번 MWC에서도 삼성전자 바로 맞은편에 부스를 차리고 폴더블 폰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매직Vs'는 후면 카메라 디자인 외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와 외형이 비슷하고 실제 사용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

려졌다. 512GB 기준 출고가는 1599유로(약 223만원)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오포(Oppo)도 삼성 갤럭시 Z플립과 유사한 폴더블 폰 '파인드 N2 플립'을 선보였다. 해당 스마트폰은 클램셀(조개껍데기 디자인) 방식을 채택한 갤럭시 Z플립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3.26인치로 Z플립보다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너의 폴더블폰 '아너 매직Vs' /아너

여기에 45~110도사이의 모든 각도로 접을 수 있는 '플렉스폼 모드'를 지원해 Z플립과 사용자 측면의 편의성도 유사하게 구현했다.

그런데도 제품 출고가가 1049유로(약 150만원)로 다른 폴더블폰에 비해 저렴했다. 화웨이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출시한 아웃폴딩 기법이 적용된 폴더블폰 '메이트Xs2'를 이번 MWC에 내놨다.

중국의 폴더블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애플의 폴더블 기기 개발도 '곧'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3·1절 기념식서 이재명과 만나 대화없이 '짧은 악수' /사진 뉴시스
▲이재명,尹정부 겨냥 "대한민국, 주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

▲안민석 "이재명 사퇴 여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北, 3·1절에 일본 비난...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 없다"



▲김 "일본, 과거사 반성해야" 안 "한일관계, 경제·역사 분리 접근" /사진 뉴시스
▲美 국방부 "TTX서 北 핵·미사일 대응 논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